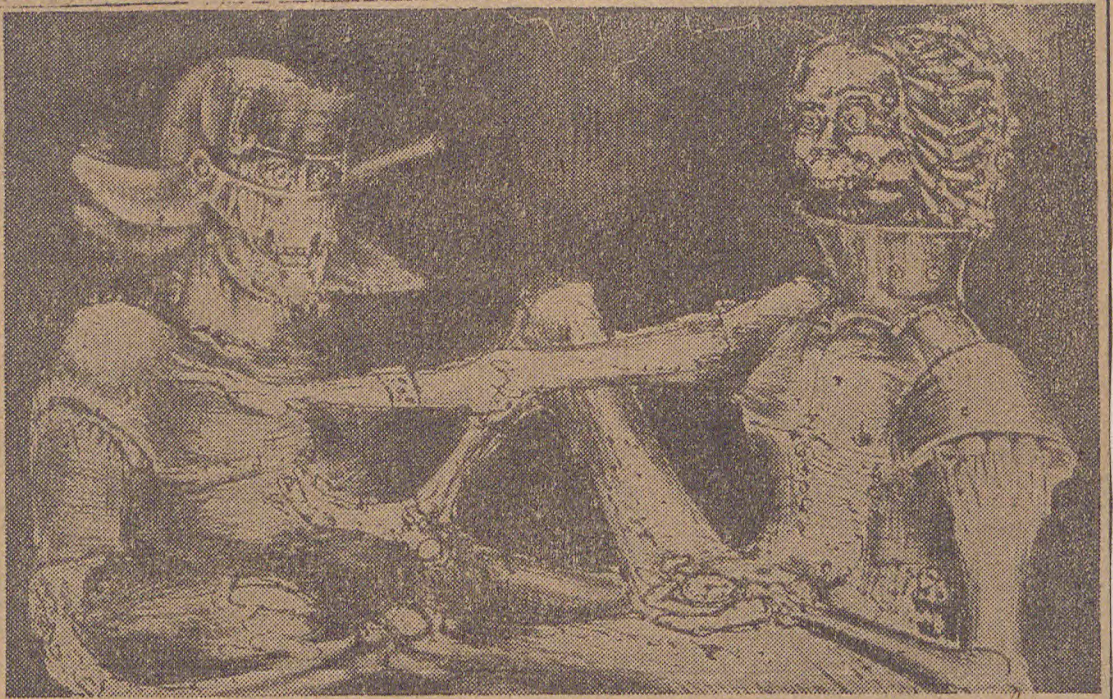


1964年1月23日 木曜日



版
重
에의招待

△本社主催ブラジル現代版畫展에서▽

작
品
8

銅版잇팅·아끄아틴트Ⅱ

마르세로·그라스만 작

畫面에 가득찬 怪奇한 분위기가 우선 보는 이들의
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. 다분히 文學的인 그
림이다. 作家는 題目을 붙이지 않았
지만, 戰爭과 死神과 運命이 이 그림의
「테마」이다.

中世紀騎士의 무의무구와 자못은
古수를 뜻한 騎士의 象徴。 왼쪽 騎士의
적덕은 공포의 눈은 무엇에 걸렸는가.
바른편 자못속은 骸骨과 뼈다귀만의 軍
神이 冥神은 勝利의女神이 아니라 敗
北의 冥神의 死神인 것이다. 이 殘忍한
死神에 걸린 騎士가 運命의 時間을 기다
려야 하는 순간되는 絶望의 刹那!.
왼손에時計를는 死神은 때연하게
비스듬히 앉아서 刻一刻 다가오는 騎
士의 絶對運命을 宣告하며 嘲笑한다.
이 死神은 어찌면 왼쪽 勇감한 騎
士에게 斬殺된 敵方騎士의 亡靈인
지도 모른다. 이 骸骨을 부둥켜 쥐고 있
는 白骨의 손이야말로 진짜 死神인가.
興者必亡! 이 針도 반드시 죽을날
이온다는 強烈한 暗示가 침침한 어둠
을 背景으로 넘쳐 있다.

戰爭과 死神과 運命과...

戰爭은 人類歷史의 一部分이
에 이르기까지 無數한 生命을 앗아
갔지만, 어느 戰爭이 永劫의 勝利를 顯
歌할 수 있었는가.

39歲의 作家가 人類의 끝없는 어리석은 殺戮
을 諷刺한 것은 이 그림의 예도 바로 絶에 展示
된 다른 作品에서도 역력히 찾아 볼 수 있다.

△中東駿記▽

Marcelo Grassmann

Exposiçao de Gravadores Brasileiros

Coletiva enviada de Toquio

Saul, Coieia, 14 de janeiro de 1964

Galeria do Ministerio de Informaçao Publica

